



14일 인천도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의 루니가 대한항공 블로킹벽을 피해 스파이크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수·양신영 '금빛 질주'

주니어 쇼트트랙선수권
남녀 1,500m 동반 우승

한국 남녀 쇼트트랙의 차세대 주자들이 2007 세계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1,500m에서 동반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양신영(분당고)은 14일(한국시간) 체코 블라타 볼레슬라프에서 계속된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19초186으로 대표팀 후

배 신새봄(과천중·2분19초234)과 박소희(서현중·2분19초990)를 간발의 차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남자부 1,500m 결승에 나선 이정수(광문고)도 2분24초330으로 역시 대표팀 선배인 신우철(한국체대·2분24초773)을 0.443초의 차로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어 열린 여자 500m 결승에 나선 신새봄은 45초416으로 중국의 자오 난난(45초533)을 합격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이번 대회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차지했다.

신지애·김영 월드컵골프 출전

여자월드컵골프대회에서 출전하는 김영(27·신세계)과 신지애(19·하이마트)가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라오스에서 전지훈련을 해 온 김영은 "(신)지애가 워낙 잘해 걱정이 없다. 공식 연습일을 이용해 손발을 맞춘다면 우승까지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지애는 "프로 데뷔 후 한국을 대표해 월드컵에 나가게 돼 영광이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한편 국가대표전인 이번 대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시어의 캐리플레이어 골프장(파72·6천466야드)에서 19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서울 SK의 임재현이 14일 오후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프로농구 창원LG와의 경기에서 레이아웃을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서울 SK가 81-77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루니 뜬 현대캐피탈 4연승 질주

프로배구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대한항공의 상승세를 잠재우고 10여 일만에 설욕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말 2-3으로 패한 뒤 절치부심해 온 현대캐피탈은 14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 대한항공과 원정경기에서 '특급용병' 루니의 활약을 앞세워 3-1(25-21 25-22 15-25 25-16)로 승리했다. 아시아게임 후유증으로 주전 상당수의 체력이 크게 떨어져 한때 고전한 현대캐피탈은 4연승과 함께 7승3패로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루니가 고공강타의 위력을 찾았고 윤봉우, 이선규, 하경민 등이 버티는 장신 블로킹이 살아난 것이 고무적이다. 코트에 돌풍을 몰고왔던 대한항공은 전날 삼성화재에 접전 끝에 1-3으로 패한 뒤 2연

보비 앞세운 대한항공 3-1 제압 삼성화재, 상무 꺾고 선두 유지

패를 당해 기가 꺾였고 중간순위는 3위로 밀렸다. 현대캐피탈은 1세트에 접전을 벌이다 12-13에서 레프트 송인석의 강타가 활기를 띠고 대한항공의 수비가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고 내리 6득점, 18-13으로 전세를 뒤집은 뒤 줄곧 앞서 기선을 잡았다. 현대캐피탈은 2세에선 블로킹과 속공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신바람을 냈다. 신영수와 김학민, 보비로 이뤄진 대한항공 삼각편대에 고전하다 송인석의 스파이크와 하경민의 블로킹으로 14-14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하경민의 전광석화 같은 속공과 루니의 강타로 17-15로 앞섰고 24-22에서 송인석의 시간차 공격이 성공해 세트스코어 2-0으로 달아났다. 3세트에는 대한항공 보비, 강동진의 강서브, 스파이크에 초반부터 풀리면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 15-25로 지면서 한 세트를 내줬다. 그러나 4세트 들어 루니와 윤봉우가 스파이크, 블로킹에서 팔팔 날면서 6-2로 앞서며 흐름을 바꾼 뒤 하경민이 있던 블로킹으로 대한항공의 추격지를 차단해 13-4로 달아났고 루니와 송인석의 쌍포가 계속 터지면

서 25-16으로 깔끔히 승부를 마무리했다. 이밖에 대전에서는 삼성화재가 장병철(20득점)과 이형두(12득점)의 '좌우쌍포'를 앞세워 상무를 3-0(25-20 25-18 25-18)으로 누르고 8승1패가 돼 선두를 지켰다. 한편 인천도원시립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여자부 경기에서는 흥국생명이 김연경(32득점)의 활약을 앞세워 3-1(25-17, 23-25, 25-23, 25-17)로 승리, 1위를 유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5일(월)
▲PGA투어 소니 오픈 FR(09:00·SBS스포츠)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KB국민은행-신세계)(16:50·SBS스포츠)

2007년 중국 명문대학 입학반 모집

2007년 9월 중국대학 입학: 베이징대 / 칭화대 / 복대 / 동대 / 허난대 / 광둥대 / 상하이대 / 베이징대 / 난징대 / 톈진대 / 허난대 / 허난대 / 허난대

2008년 9월 한국사 대학: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 / 한양대 / 중앙대 / 성균관대 / KAIST / Yonsei / Seoul Natl / Korea / Hanyang / ChungAng / SKY

2007년 9월 중국대 입학: 광둥, 베이징, 허난, 상하이, 톈진

중국대학 입학 설명회: 1월 15일(월) 19:00~21:00

중국어학원 中国語学院: www.chineseacademy.com.kr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최신출판YBM모사전영어학원 조성훈 교수 11회 만점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990점 만점반 800점 목표반
660점 목표반 초·중·고 학생반

동아외국어학원